

대형마트 입점 놓고 법정다툼 하던 북구, 결국 상고 포기

“생존권 위협 주민 외면” 상인들 반발

저지대책위, 집회·가두시위 등 대응 예고

광주시 북구 삼각동 일대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S법인과 법정다툼을 벌였던 광주 북구청이 상고를 포기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은 2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S법인과 대형마트 입점허가(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6월 원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했지만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난데다 상고를 하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판단, 검찰의 상고 포기 지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S법인 측은 건축허가 등 마트 입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 장귀환 위원장은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추가 진출은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0월 6~7일 사이 북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삭발식을 진행하고 대형마트 입점 부당성을 알리는 차량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공사가 시작되면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S법인 대표 소유의 주류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끊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집행위원장 김용재)도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비롯해 향후 대책을 요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상인들은 “개인 법인을 내세운 대기업 대형마트의 우회입점이 우

려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S법인은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면적 2만4000여㎡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지난 2월 북구청이 지역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광주고법 재판부는 “주거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의 갖춘 신청인에 대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건축법상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S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30일 오후 6시 준공식을 갖는 광주 양동 시장 ‘양동문화센터’ 전경. 양동문화센터는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흥애 레스토랑, 다문화행복장터 무지개마을, 양동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양동시장사업단 제공>

확 달라진 재래시장... ‘양동문화센터’ 오늘 준공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교류 공간이 될 ‘양동문화센터’가 30일 문을 연다.

올들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양동문화센터’는 양동시장 가동 옥상에 총 면적 560.67㎡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광주 비엔날레 양동시장 특별프로젝트 ‘장

사시’가 진행 중인 시장 속 박물관과 흥애(愛) 레스토랑, 양동카페, 다문화행복장터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실 등으로 구성됐다.

흥애 레스토랑은 양동시장의 대표 품목인 흥어를 특화하기 위해 흥어를 다채롭고 저렴한 흥어요리를 개발·판매한다. 양동시장에는 흥어상가가 97곳이나 밀집해 있는데도 그동안 흥

어 맛을 볼 수 있는 식당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 흥애 레스토랑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다양한 흥어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지개마을은 베트남과 중국, 일본식당 그리고 재료판매점, 다문화공방으로 이뤄졌으며, 양동카페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원두커피를 판매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진 가정 3곳중 1곳 “값기 힘들다”

상의 설문, 25%는 작년보다 빛 증가

빛이 있는 가구 3곳 중 1곳은 빛을 감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부채가 있는 수도권 가구 517곳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실태 및 소비 영향’을 조사한 결과, 29.2%가 부채 상황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고, 4.1%는 빛값기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를 합하면 가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셈이다.

부채 상황에 별문제가 없다는 응답

은 66.7%였다.

월수입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답이 19.6%였으나 300만원 미만 가구는 41.8%, 100만원 미만은 66.7%로 집계돼 소득이 낮을수록 빛 갚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는 1000만~1억원이 65.4%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28.2%), 1억~2억원(5.8%), 2억원 이상(0.6%) 순으로 조사됐다.

빛을 진 이유로는 주택구입(40.

8%), 자동차·가전제품 구입(31.7%), 사업자금(11.2%), 전·월세자금(10.3%), 생계비(5.6%) 등을 꼽았다.

지난해보다 빛이 증가했다는 가구는 24.8%로,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2.2%포인트 높았다.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안정(48.9%), 부동산 활성화(26.7%), 상환기간 연장·대출만기 장기화(14.1%), 장기·고정금리형 대출 확대(9.5%)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상수지 7개월째 흑자

8월 20억7천만 달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지난달까지 7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29일 발표한 ‘8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2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7월의 58억2천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은 많이 작아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업의 휴무로 수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 흑자는 36억9천만달러로, 7월의 71억6천만달러와 비교해 절반가량에 머물렀다.

한은은 그러나 휴가철이 지나면서 수출이 다시 회복해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대출금리 오른다” 고정금리 수요 늘어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졌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집계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8월의 17.2% 이후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초 20~30%에 달하던

고정금리 비중은 점차 낮아져 2008년부터는 한자릿수에 머무르는 때가 잦았다. 지난 6월 7.3%까지 내려갔던 고정금리 비중은 그러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난 7월 12.5%로 올랐고 지난달 다시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세

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공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유(우)보금자리론 판매가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보금자리론은 지난 6월21일 출시 이후 약 3개월 만에 신청금액이 4조원을 돌파했으며, 실제 판매금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대출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데다 이처럼 고정금리 대출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할인·적립 혜택 받으려면 매달 30만원 이상 써라”

카드사 핏포

요즘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받으려면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전월 카드 실적’이다.

길거리에서 카드만 발급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놀이공원에 공짜로 입장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렵게는 소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일시불과 할부 등 ‘전월 신용판매 실적 30만원 이상’이 대체로 굳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입장권 구매 시 1천~2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전월에 일시불과 할부로 30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금융상품은 가맹점 수수료와 없고 고객에게

이용수수료를 받는데 이용 후 곧바로 갚아버리면 고객이 수수료도 물지 않으므로 실적 산정에서 빼고 있다.

카드사로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각종 혜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30만원 이상 소비’를 내세우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업계에는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주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연합뉴스

천정부지 치솟는 채소값에 저장성 농산물·반찬만 불티

배추와 무, 대파 등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조리된 반찬 제품이나 채소 대신 먹을 만한 버섯, 나물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또 채소값 오름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감자, 당근 등 저장성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29일 옥선에 따르면 이달 1~28일 반찬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

간보다 38% 늘었으며 그 가운데 장기 저장이 가능한 절임·조림류 판매량은 63% 증가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버섯류와 나물류 판매량 역시 각각 113%, 122% 급증했다. 저장성 농산물인 감자는 26%, 당근은 32% 각각 판매량이 늘었고, 특히 5~10kg 상자 단위로 상당수 판매됐다. /연합뉴스

채소값이 폭등했는데도 9월 들어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18% 늘었으며 그 가운데 배추는 62%, 쌈채소는 67% 각각 증가했다. 이는 길로그램(kg) 단위로 대량구매 하기 쉬운 온라인몰의 특성상 여러 가구가 모여 공동구매를 하거나 일반 식당 운영자들이 구매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선 신선식품팀 고현실 팀장은 “온라인몰은 산지 직거래를 하므로 비교적 값이 싼데다 박스 단위로 대량구매를 하는 만큼 더 오래 전에 많이 사들여졌다는 소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벽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이태리 소파 전문관 오픈 30%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Bastex 바스텍스 Brianform 브리안폼

MAX DIVANI 맥스디바니 Chateau d'Ax 샤토악스

세계적인 이태리소파 전문관을 오픈했습니다. 바닥과 등받이가 침대처럼 확장되는 명품소파를 대중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칼라가죽, 뛰어난 복원력.. 일반가구는 홍스페이스 같은 수입원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30% 이상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신고서 확인)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주, 홍스페이스 가구빌딩(7개층/구도청영)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62)226-7565~7567